

[論 文]

日本 先史時代 및 古代의 建築에 보이는 韓國 文化의 影響

金 正 基

(翰林大學校)

〈目 次〉

序 言

I. 先史時代

- 1) 海美型住居
- 2) 日本의 海美型竪穴住居
- 3) 高床建物

II. 古 代

- 1) 日本의 新建築導入

2) 飛鳥寺伽藍

3) 四天王寺伽藍

4) 川原寺伽藍

5) 藥師寺伽藍

6) 陸奥國分寺伽藍

結 論

序 言

日本의 傳統建築 속에 뿌리박은 韓國의 建築的 要素는 日本 先史時代 建築 속에서도 얼마간 찾아볼 수 있으나 주로 日本의 古代 建築, 특히 佛敎建築을 主軸으로 한 石造基壇을 構築하고, 治石된 礎石을 配置하며, 木造部材를 깎고 다듬어, 기둥머리에는 斗栱을 裝置하고, 지붕을 기와로 잇고, 木部나 壁體 表面을 丹青하여 裝飾한 中國에서 시작되어 韓半島에 導入되고 定着하여 그것이 다시 日本으로 傳해진 發達된 새로운 建築技法과 資料들로 이루어진 建築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伽藍의 配置形式이나 建築을 위한 基壇工法, 基壇形式 및 建物の 細部技法 등에 比較的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日本建築은 그들이 말하는 古代末 즉 12世紀頃 부터는 그 以前에 韓半島에서 傳해 받은 여러가지 建築的 要素들을 그 곳의 地理的 特徵과 그들의 民族의 性格 및 傳統의 興趣向에 맞추어 그들의 個性이 比較的 뚜렷이 나타나는 建築으로 變化시켜 나갔다.

이와 같은 日本 古代의 建築文化樣相에서 나타난 現象들은 비단 建築에서만 나타나는 現象이 아니고 여러가지 文化的 所産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여러가지 文化現象 역시 12世紀頃 부터 所謂 日本의 文化傳統이 確立되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日本の傳統的文化現象도 그以後의大陸의文化影響 또는 文化的衝擊에서 斷絶된 채 超然한立場에서 그 후의日本文化로서 發展되어 나갔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때 그때의大陸의文化的影響을 適切히 受容하면서 이미 確立된 傳統的인 文化 속에 反影·吸收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던 것임은 두 말 할 나위도 없다. 다만 12世紀以後의 이와 같은 日本의 文化現象에 影響을 미치게 된大陸의 새로운 文化가 古代에 있어서와 같이 韓半島를 거쳐, 때로는 韓半島에 定着하여 韓半島化된 것을 받아들인 것도 있었을 것이나, 中國과의 直接的 交渉으로 導入한 것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近世에 이르러서는 日本內에서의 戰亂과 그 뒤의 鎖國政策에 의해 外來文化의 直接的인 導入이 激減되었으나 壬辰 丁酉의 韓半島 侵犯과 그 후의 通信使의 來往 등으로 다시금 韓半島文化의 影響, 아니 韓半島文化의 掠奪의 導入과 受惠의 導入으로 日本에서의 文化的 發展의 계기를 다시금 韓半島를 통해 成就하게 되었다.

建築에 있어서도 中世에는 中國의 建築的 要素를 直接 導入하기도 하였고, 近世에 와서는 그들의 傳統化된 建築文化 속의 一部에 韓國의 建築文化를 加味시킨 部分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위와 같은 文化的 特性을 바탕으로 한 日本의 建築 속에 뿌리박은 韓國의 建築文化의 要素들을 先史時代에서 古代에 이르기까지의 實態를 分析 抽出하여 그것이 日本建築에 어떻게 作用하였으며 日本建築文化 속에서 어떤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I. 先史時代

先史時代의 建築은 대부분 住居建物이고 그 밖에 얼마간의 倉庫建物이 있었을 것이며, 時期가 내려오면 高床의 住居 또는 倉庫建物 이 나타난다. 이들 建物들의 架構方法은 建築部材인 통나무를 새끼나 닳은 끈으로 엮어매는 소위 原始的 技法에 의하여 建立된 建物이었다. 이와 같은 先史時代의 建築相은 韓半島에서나 日本列島에서나 거의 같은 狀況이었다.

先史時代에 있어서의 住居建物은 韓半島에서나 日本列島에서나 다 같이 竪穴住居가 그 大宗을 이루고 있었다. 韓半島에서의 確實한 竪穴住居의 出現은 新石器時代 부터이며, 日本列島 역시 新石器時代에 該當되는 繩文時代부터이다. 이와 같은 竪穴住居는 韓半島에서는 그 뒤의 靑銅器時代를 지나 初期鐵器時代까지 계속되고, 原三國時代에 들어서서는 竪穴住居의 形式을 痕跡으로 남기는 거의 地上住居라고 할 수 있을만한 住居形式으로 發展 變化해 나갔다. 日本列島에서는 竪穴의 形式이 時代 또는 地域에 따라 많은 變化를 보이면서 初期鐵器時代에 該當되는 彌生時代를 지나 地域에 따라서는 古代의 末期 즉 10世紀頃까지 一般庶民들의 住居形式으로서 存在하였다. 그러나 韓半島의 竪穴住居文化와 日本列島의 竪穴住居文化와의 사이에는 그 形態上 어떤 直接的인 關連性을 찾을 수 있는 要素를 發見하지 못한다. 韓半島에서는 韓半島 自體로서 發展 變化해 나갔고, 日本列島에 있어서도 그 속에서만의 形式으로 發展되어 나갔다. 그리고 韓半島에서의 竪穴住居文化는 中國 遼寧地方이나 東部시베리아의 竪穴住居文化와의 關連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으나,

日本列島の 그것은 日本 自體에서도 그 住居文化의 源流가 어느 곳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1) 海美型住居

韓半島에서는 靑銅器時代에 들어서 中部西海岸인 瑞山海美地域을 中心으로 發見된 所謂 海美型 竪穴住居 또는 松菊里型竪穴住居라고 불리우는 한 異型 즉 韓半島에서의 이 時代 竪穴住居의 一般型인 平面 長方形이며 세, 네 줄의 기둥구멍이 竪穴 長壁에 平行하여 配置되고, 爐가 竪穴 안 한 쪽으로 치우쳐서 設置되는 形式과 다른 性格의 竪穴住居文化가 있다. <圖 1>

海美型竪穴住居地는 海美邑과 德山面의 境界를 이룬 休岩里의 丘陵地帶에서 發見되었다. 遺蹟은 現 西海岸에서 直線距離 4km 以內에 있는 地域이다. 住居地는 一邊 5~6m의 모가 크게 둥근 正方形의 것과, 長經 4m 內外, 短經 3m 內外의 橢圓形인 大, 小 두 形態의 竪穴이었다. 正方形 竪穴에는 竪穴 中央에 長經 60cm, 短經 30cm 內外의 얇은 橢圓形 구멍이 있고, 다시 이 구멍 안쪽 兩端에 直徑 15cm 정도의 圓形의 깊은 垂直 구멍이 있다. 또 이 複合된 구멍을 中心으로하여 四方에 서로 1.2m 정도의 距離를 두고 正方形으로 配置된 直徑 15cm 內外의 垂直구멍이 네 개 整然하게 파여 있었다. 竪穴의 壁을 따라서는 壁 밑에 군데 군데 작은 구멍이 있었으나 이들 구멍은 竪穴住居의 屋蓋架構를 支撐하는 그런 기둥구멍이 아니고 竪穴壁面을 긴 풀이나 짚 등으로 包裝하기 위한 가는 支撐木을 세웠던 구멍인 듯 했다. 小形의 橢圓形竪穴에서는 中央에 橢圓形과 垂直의 圓形구멍으로 된 複合구멍이 있을 뿐이며, 이를 中心한 네 개의 垂直의 圓形구멍은 없었다.

이들 竪穴住居址바닥에서는 出土遺物 특히 土器들의 出土가 거의 없었고, 若干의 無文土器片과 같이 다른 地域의 住居地에서는 出土되지 않은 紅陶片과 黑陶片들이 小量이나마 出土되기도 하였다. 또 이들 住居地 周邊에서는 長方形의 石製刃器와 玉石으로 된 매우 작은 明器的인 石斧이 發見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竪穴住居 形式은 韓半島에서 發見되는 一般的인 竪穴住居 形式과는 그 形態가 크게 다른 것이며 특히 先史時代 竪穴住居에서는 必需的인 施設이라고 할 수 있는 爐가 없고, 出土遺物 역시 特異한 樣相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海美型竪穴住居에 속하는 竪穴住居址는 그 뒤에 扶餘松菊里遺蹟과 光州松岩洞遺蹟에서도 發見되었고, 東쪽 內陸地方에서는 堤川內秀里遺蹟에서 發見된 바 있다. 특히 近來에 와서는 靈岩長川里遺蹟에서 高床建物遺構와 같이 發見되었고 住岩岫 水沒地區의 遺蹟發掘調査에서는 昇州郡 松廣面 大谷里 一帶에서 海美型竪穴住居에 속하는 많은 住居址와 이의 變化形式이라고 할 수 있는 橢圓形으로 된 複合孔 안의 垂直의 圓形구멍이 橢圓形구멍의 兩端 밖에 位置한 形式도 發見되었다. 그런데 松菊里遺蹟에서는 住居址에서의 出土遺物이나 그 周邊에서 出土되는 遺物의 樣相이 海美遺蹟의 경우보다는 顯著하지 못했으나 分明히 他地域에서의 一般的인 形式의 住居址에서 나타나는 遺物相과는 달랐고, 光州 松岩洞遺蹟이나 堤川 內秀里遺蹟 및 全南地方의 여러 遺蹟에서는 竪穴住居址의 形態만이 海美型竪穴住居址나 또는 그 變化된 形式의 住居址였고 그들 遺蹟의 遺物相은 이 時代의 다른 地域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若干의 地方의 特色을 보이는 遺物相

을 보이고 있었다.

위와 같은 遺構와 遺物의 樣相을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이 海美型竪穴住居는 韓半島 在來의 生活文化와는 다른 生活文化를 갖는 一團의 사람들이 海美附近的 海岸에 漂流 또는 流入 定着하여 점차 그 周邊으로 그들이 갖고 있던 住文化를 傳播시켜 나갔으나 그들의 生活文化는 流入 定着된 初期에는 그대로 그 特徵을 維持하였으나 점차 在來의 文化에 融和 吸收되어 그 特性을 잃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住居文化는 北쪽 限界線은 아직 確實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扶餘 松菊里보다 훨씬 北上될 것으로 믿어지며, 東쪽은 堤川 內秀里附近까지이며, 南쪽으로는 韓半島 西南部 全域이 包含되어 靑銅器時代에 시작되어 初期鐵器時代에 걸쳐서 傳播 普及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住文化의 流入 時期와 傳播 範圍를 보면 所謂 馬韓이라고 불리우는 先史時代末에 여러 部族國의 連合體로서 形成된 한 勢力을 이룬 사람들이 居住했던 地域과 一致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住居文化를 갖던 사람들이 馬韓을 形成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馬韓 사람들의 風習에는 韓半島에 居住하던 다른 部族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文身 風習이 있었다고 한 것을 보면⁽¹⁾ 이들 住文化를 갖던 사람들은 아마도 南方 즉 中國의 華南地方 아니면 大洋洲地域의 어느 곳에서 부터 韓半島로 流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 日本의 海美型竪穴住居

海美型竪穴住居의 變化된 形式인 竪穴住居址가 日本의 北九州를 中心으로 彌生時代 中期 以後의 遺蹟에서 적지 않게 發見되고 있다. 日本에서는 이에 속하는 竪穴住居址를 松菊里型住居址라고 부르고 있다. 日本에서 發見된 松菊里型住居址를 綜合的으로 檢討 研究한 成果⁽²⁾에 의하면 日本에서는 圓形竪穴의 中央에 橢圓形의 얇은 구멍의 長徑쪽 밖에 垂直으로 뚫린 圓形구멍을 갖는 形式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서도 竪穴 바닥에 다른 기둥구멍이 없고 竪穴 가장자리에 比較的 큰 기둥구멍이 몇몇 發見되는 直徑 4~5.5m 정도의 比較的 큰 規模의 住居址(古期 松菊里型住居)와, 이와 비슷한 모습이나 規模가 뚜렷하게 작아지고 竪穴의 直徑이 5m 以下이며, 때로는 中央의 複合구멍 以外에 竪穴바닥에 기둥구멍이 없는 것(新期松菊里型住居)도 있다. 또 이와 같은 竪穴住居 形式의 日本 內에서의 變化 發展 形式일 것으로 보이는 橢圓形의 얇은 구멍 長徑쪽 밖에 垂直의 圓形구멍 以外에 이를 中心으로 竪穴바닥에 네개 또는 더 많은 기둥구멍들이 無秩序하게 配置되는 形式(發展松菊里型住居)도 있다. 그러나 이 發展松菊里型住居는 오히려 海美型竪穴住居 가운데 모가 둥근 方形 平面으로 된 大形 竪穴 즉 中央의 複合구멍을 中心으로 하여 네 곳에 垂直의 圓形구멍을 配置한 形式의 竪穴住居의 變形形式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어 떻든 이와 같이 日本에서 發見된 海美型竪穴住居에 속하는 竪穴住居址는 日本의 彌生時代 前期末

1) [三國志] 魏志. 東夷傳, 「韓」條「韓在帶方之南 東西以海爲限 南與倭接, 方可四千里. 有三種 一日馬韓 二日辰韓 三日弁韓 …… 馬韓在西, 其民土著 種植 知蠶桑 作綿布 …… 其男子 時時文身……」

2) 中間研志 「松菊里型住居」 『東アジアの 考古と歴史』 1987.

에서 中期에 걸쳐서 北九州地方에 集中的으로 分布하며, 이들 가운데는 後期에 속하는 住居址도 있었다. 이들 形式의 竪穴住居址의 分布는 그 대부분이 北九州地方인 福岡縣에 集中되고, 〈圖 2〉 얼마간은 西部九州地方인 熊本縣에서 發見되었고, 四國島의 太平洋岸인 高知縣에서도 몇몇 發見되고 있다. 日本 本州에서는 本州 西端部인 山口縣과 近畿地方인 和歌山縣에서 각각 한 개의 住居址가 發見되고 있다.

이와 같은 海美竪穴住居의 變化 發展된 形式의 住居址가 韓半島 西南部와 日本 北九州地方에 널리 分布하고, 住居 모습과 그 變化樣相으로 보아서는 이와같은 住居形式이 韓半島에서 北九州地方으로 傳播된 것이 分明하다. 또 그것이 日本 本州나 四國島로는 北九州地方에서 다시 傳播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海美型竪穴住居의 日本으로의 傳播狀況을 본다면 韓半島 西南部에서 海美型竪穴住居의 變化 發展된 住居文化를 갖고 생활하던 사람들의 상당히 큰 集團이 北九州地方으로 移住 定着하여 그 곳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住居文化를 그대로 固守하거나 얼마간의 變化 發展을 이룩하면서 살았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四國島나 本州에는 그들 가운데 小數의 사람들이 移住하였거나 漁撈作業中에 漂流하며 그 곳에 그대로 定着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初期鐵器時代의 韓半島 특히 韓半島南部地域의 여러 文化樣相과 당시의 日本 北九州地方을 中心으로 한 넓은 地域의 文化에는 共通되는 點이 매우 많아 이들 地域이 同一 文化圈을 形成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事實은 이와 같은 韓半島 住民들의 大量 移住와도 無關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며, 또 그 뒤의 日本王朝와 百濟와의 親交의 바탕에서 이와 같은 事實이 그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3) 高床建物

韓半島에서의 初期鐵器時代에는 住居形式으로 竪穴住居 以外에 高床住居 즉 다락집 形式의 住居가 있었던 事實이 中國의 古文獻 記錄에 의해 알려져 있고³⁾ 또 그것이 住居建物인지 倉庫建物인지는 分明치 않으나 高床建物の 遺構일 것으로 믿어지는 두 줄의 기둥구멍 列로 된 樑間 1間이며 道里間 2間과 3間的 遺構가 金海府院洞遺蹟과 靈岩長川里遺蹟에서 發見된 바 있다. 또 日本의 彌生時代 末期에는 住居 또는 倉庫建物址로서 比較的 많은 高床建物の 遺構가 發見되고 있으며, 그 發見數로는 日本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

이와 같은 高床建物이 韓半島에서 日本으로 傳播된 것인지 또는 高床建物이 원래 高温多濕한 地域에서 盛行하는 建物形式이란 點에서 日本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 韓半島로 傳해진 것인지는 明確하게 밝히기는 어렵다. 그러나 日本의 先史文化 가운데 많은 文化的 要素들이 韓半島에서 傳播된 文化를 바탕으로 發展되어 왔다는 事實을 감안한다면 이 高床建物の 傳統도 역시 韓半島에서 傳해진 것이며, 그 建物形式이 日本의 氣候的 環境에 適合했기 때문에 韓半島에서 보다 더 盛

3) [晉書]四夷傳「肅慎氏」條「……冬則穴處 夏則巢居……」

行했던 것일 可能性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 時代는 古代로 내려오나, 日本 東大寺의 正倉院의 귀틀집으로 된 高床의 雙創建物(校倉式雙倉)과 共通되는 것이 確實한 귀틀집으로 된 高床의 雙倉이 高句麗 壁畫古墳의 하나인 麻線溝1號壁畫墳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도 이와 같은 高床의 倉庫建物도 韓半島에서 건너간 것임을 立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II. 古代

우리나라 三國時代의 여러 建築의 要素들이 日本의 傳統的 建築에 뿌리내린 事實은 여러 部分에서 確認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建築의 發生 즉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建築이란 先史時代의 普遍的인 建築에서 볼 수 있었던 原始的인 技法과 資材로 建立된 建物, 말하자면 기둥이나 도리보 등을 주로 통나무로 만들고, 이들 部材를 새끼나 넝쿨, 끈 등으로 서로 엮어매어서 架構하고, 지붕에는 풀이나 짚으로 이은 그런 建物이 아니고, 基壇을 쌓아, 礎石을 놓고, 나무를 깔고 다듬어서, 흙이나 축 또는 이음새를 만들어 이들을 짜올리면서 建物을 架構하고, 지붕을 기와로 잇고, 木部 表面에는 丹青한, 中國에서 開發되어 우리나라에 傳해진 새로운 發達된 建物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建物은 韓半島에 있어서는 일찍 先史時代末에 扶餘族 사이에 傳해졌고, 따라서 扶餘族의 一派에 의해 建國된 高句麗에서는 當然히 建國 당초부터 新建築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갖고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百濟 역시 高句麗系의 한 部族에 의해 建國된 것으로 보아 建國 당초부터 이와 같은 新建築을 갖고 있었으며, 그것은 高句麗의 建築과 꼭 같은 것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新羅는 高句麗나 百濟와는 달리 新建築의 導入은 앞의 두 나라보다 좀 늦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新羅가 位置한 立地的 條件에 따라 先進文化 傳播가 늦었던 事實과 統一國家 形成이 앞의 두 나라보다 늦었던 것에 起因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新羅의 木槨積石墳, 특히 天馬塚이나 皇南大塚 등의 發掘에서 밝혀진 木槨 構築技法이나 副葬品格納櫃나 木棺 등의 加工 製作技法 등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5世紀初에는 新羅에도 新建築이 導入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皇龍寺址 發掘에서 알려진 基壇의 構築方法이나 形式 및 伽藍配置形式 등을 보면 新羅는 新建築을 高句麗로부터 배운 것이 確實하며 部分的으로는 百濟의 影響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以上과 같은 三國時代 建築을 概觀한다면 그것은 다른 여러가지 先進文化의 경우와 같은 狀況이기는 하나 三國時代의 韓半島內의 建築은 그 바탕에 高句麗의 建築이 깔려 있고, 그 후 점차 高句麗는 高句麗 대로, 百濟, 新羅 역시 그들의 趣向이나 自主的인 外國과의 交流를 통하여 그 나름대로 자기 個性있는 建築文化相을 形成해 나간 것이라고 생각된다.

日本 古代에 있어서의 發達된 新建築은 從來부터 全的으로 百濟로 부터 그 技術이나 技法 또는 資材製作 등의 技術이 傳해진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것은 百濟 聖王(523~554)이 처음으로 佛像과 經典 및 露盤博士와 互博士, 畫工 등 佛教文化와 寺刹建築에 必要한 各種 技術者 工匠들을 日本으로 派遣한데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近來에 와서 4世紀末에서 5世

紀初頃の 것으로 생각되는 家型土器(家型埴輪)의 지붕 合閣部에 보 中央에서 마루도리를 支撐하는 童子柱形台工이, 短柱 위에 소로를 올린 分明히 新建築에서 나타날 수 있는 形式의 童子柱로 된 것이 發見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日本 學界에서도 적어도 百濟 聖王이 寺刹建築에 必要한 技術者를 日本에 派遣하기 前부터 部分的이나 新建築의 技法이나 形式이 日本에 流入되고 있었다는 事實을 認定하기 시작하였고, 어떤 學者는 百濟로 부터 新建築의 技術者들이 들어오기 以前에 「이미 日本에서는 그와 같은 新建築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形成되고 있었다」고 까지 말하고 있었다.⁴⁾ 그러나 그와 같은 新建築의 技法이나 形式이 어디서 導入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言及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위와 같은 韓半島 그리고 古代 日本의 建築의 樣相을 바탕으로 日本建築에 미친 高句麗, 百濟, 新羅의 建築의 影響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日本의 新建築 導入

高句麗는 百濟나 新羅보다 훨씬 앞선 紀元前1世紀頃に 이미 統一國家로서의 體制를 갖추기 시작하여 점차 強大한 勢力으로 成長하여 中國 中原을 威脅할 정도의 強大國으로 發展했고, 그 文化역시 連續된 陸地를 통하여 中國 華北地方과의 直接的인 交流로 三國 가운데 가장 빨리 中國의 先進文化를 받아들였고, 앞에서 말 한 바와 같이 韓半島 全域에 그들의 先進文化를 傳播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은 文化的 先進國이었던 高句麗가 아직 原始的 文化段階를 벗어나지 못했던 日本에 文化的 影響을 미치지 않았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情勢인 것이다. 비록 그것이 國家의 意志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個人的인 交流나 혹은 航海中이거나 漁撈作業中の 漂流 등에 의하여 自然스럽게 서서히 先進文化를 後進文化地帶인 日本으로 傳播시켰을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自然스러운 것이다. 筆者는 1982년에 發表한 日本語 論文에서 「從來의 생각은 6世紀 中葉에 百濟로 부터 佛教가 傳해지고 그 후도 高句麗나 百濟, 新羅 등 三國의 佛教文化가 7, 8世紀의 日本에 강한 影響을 미치고 왔다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果然 그러하였던 것일까, 紀元前後에 建國되고 적어도 5世紀에는 廣大한 領域을 갖는 強力한 統一國家로서 그 文化段階도 百濟나 新羅에 앞서 顯著하게 發展하고 있던 高句麗가 6世紀 前半까지 日本에 아무런 文化的 影響을 미치지 않았을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日本의 古代는 百濟로 부터 佛教文化가 傳해지기까지는 전혀 文化的으로 原始的인 狀態에 있었다는 것일까. 그것은 너무나 不自然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百濟와 日本과의 親交 以前에는 高句麗의 各種 先進文化가 日本으로 流入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나라와 나라 또는 集團과 集團 사이의 交流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確實치 않으나, 나의 想像으로는 이들의 交流가 意識적으로 행하여지기도 하고, 혹은 偶然한 事件 - 漂流에 의한 傳播 - 등에 의하여 日本의 文化도 그 나름대로 發展 向上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佛教文化 역시 百濟로부터 公傳되기 以前에 高句麗로 부터 어떤 形態로든 日本에 傳해

4) 澤村 仁(九州芸術工科大学)談

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先史의 옛적부터 古代, 中世로 恒常 大陸의 先進文化가 韓半島를 經由하여 日本列島에 傳해져 왔던 것이며, 그런 것이 어떤 時期에만 劃然히 中斷되어 6世紀 中葉에 다시 傳해지게 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⁵⁾」라는 생각을 피력한 바 있었다.

이와 같은 見解를 바탕으로 앞에서 말한 4世紀末에서 5世紀初에 걸친 時期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家型土器 지붕 合閣에 나타난 소로를 갖춘 童子柱式台工은 高句麗壁畫古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으로서 이른 時期에 高句麗에서 日本으로 傳播된 新建築의 要素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비록 기와 製作이나 佛塔에 裝置되는 露盤 製作 등의 特殊한 佛教建築에 관한 技術들은 그 뒤에, 어쩌면 百濟로 부터 聖王代에 傳해진 것일지는 모르나 發達된 새로운 木造建築의 架構技法이나 治木技法 또는 이에 관한 木工技具 등의 상당한 部分이 이미 그 以前에 日本으로 傳해지고 있었고, 原始的 技法에 의한 在來의 木造建築에도 새로운 技法이 部分的으로 加味되어 改良 發達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日本에서의 發達된 새로운 木造建築의 시작은 百濟와 新羅의 경우와 비슷한 狀況으로 역시 高句麗의 木造建築에서 시작되었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앞에서 말한 귀틀집으로 된 高床의 雙倉 역시 그러한 事實을 立證할 하나의 資料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日本에서는 百濟로 부터 佛教文化가 公傳되기 以前에 벌써 新建築의 架構技法이 高句麗建築을 바탕으로 傳播 活用되고 있는 狀態에서 百濟로부터 佛教建築의 特殊部門의 技術이 傳해지자 飛鳥寺伽藍과 같은 巨大한 本格的인 寺刹을 쉽게 建立할 수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2) 飛鳥寺伽藍 <圖 3>

日本에서는 佛教가 公傳되기 以前인 522년에 日本에 渡來한 司馬達等이 佛像을 갖고와서 이를 草堂에 安置하여 禮拜하고 있었다는 記錄이 있고⁶⁾, 또 처음 公傳되었을 때 一部 守舊派(物部氏)들의 反撥로 이를 公認하지 못하고 崇佛派의 頭目이었던 蘇我稻目에게 佛像을 주었으며, 稻目は 이 佛像을 飛鳥地方의 小墾田에 있던 自己 邸宅에 安置하였다가 뒤에 이 邸宅을 寺刹로 만들었던 事實이 있으나 이들은 草堂 또는 規模가 작은 法堂 정도의 施設이며, 본격적인 寺刹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또 이들의 遺址도 밝혀지지 않았다.

飛鳥寺는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에 있으며 寺址에는 安居院이란 작은 庵子가 있고, 여기에 飛鳥寺의 本尊佛이었던 巨大한 靑銅釋迦如來坐像이 後代의 많은 修理를 겪으면서 安置되고 있다. 이 飛鳥寺에 538년에 百濟 聖王이 釋迦金銅佛과 經典을 日本으로 처음 보냈고, 577년에는 經典과 僧侶와 아울러 寺刹建立에 必要한 露盤博士, 瓦博士, 畫工, 工匠 등의 技術者들을 보냈으나, 당시 日本 朝廷에서는 佛教를 公認하지 못하고, 崇佛派의 頭目이며 最高 權力者의 한 사람이었던 蘇我馬子가 이들 造寺技術者들을 活用하여 佛像과 經典을 奉安하고 僧侶를 安住케하기 위

5) 金正基 「高句麗의 先進文化」 『明日香風』 1982. 8號 飛鳥保存財團刊 p.48.

6) [扶桑略記]

한 寺刹을 建立하기로 하였다. 馬子는 590년에 造寺用材를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592년에 佛殿과 步廊을 세우고, 593년에 塔의 心柱을 立柱하여 596년에 寺刹을 完成하였다. 이 寺刹이 日本에서 建立된 最初의 本格的인 伽藍形式을 갖춘 寺院이었으며, 그 寺名은 元興寺 또는 法興寺 등으로 불리었으나 一般的으로 飛鳥寺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 寺址는 1956년에서 1957년 사이에 3회에 걸쳐서 發掘調査되어 그 寺刹의 伽藍配置와 一部 建物の 基壇形式이 밝혀졌다. 伽藍配置는 平面 正方形의 木塔을 中心으로 그 北쪽과 東, 西쪽에 各己塔을 向한 平面 長方形의 金堂과 金堂의인 建物(中金堂, 東金堂, 西金堂)이 있고, 塔 南쪽에 位置한 中門 左右에서 시작되는 廻廊은 塔과 세 金堂을 둘러 싸고, 講堂은 中金堂 뒤를 지나서 北廻廊 밖에 獨立되어 配置되어 있었다. 또 中金堂基壇과 塔基壇은 地台石(地覆石)을 花崗岩으로 만들고, 面石(羽目石)을 凝灰岩으로 만들었으며, 基壇의 面石 사이에는 撐柱(束柱)가 없었고, 甲石(葛石)은 發見되지 않았으나 원래는 당연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基壇 周圍에는 礫石을 間 落水溝(雨落溝)가 設置되고 있었다. 특히 塔基壇은 所謂 掘塲版築(掘込版築)基壇으로 만들어졌고, 塔 心礎는 基壇 上面下에 깊게 埋設되었고, 心礎 上面 水央에는 舍利孔이 만들어져 있었다. 東·西金堂의 基壇은 二重基壇으로 上層基壇은 넛돌을 쌓아올려 만들었고, 下層基壇 上面에는 調査報告書에서는 建物の 지붕 처마 끝을 支撐하는 기둥의 礎石이라고 說明하고 있으나, 그것이 아니고 遮陽(裳階)의 기둥을 받치기 위한 것이 分명한 礎石이 配置되고 있었으며, 基壇周圍에는 역시 落水溝가 만들어져 있었다.

이상과 같은 飛鳥寺伽藍의 樣相을 볼때, 伽藍配置 形式에 있어서는 비록 中央에 位置한 木塔의 平面形態가 正方形으로 만들어지기는 하였으나 高句麗의 典型的인 伽藍配置 形式인 一塔三金堂式 伽藍配置임을 알 수 있다. 高句麗 寺刹의 伽藍配置는 金剛寺의 遺址로 比定되고 있는 平壤의 淸岩里寺址(圖 4)를 비롯하여 上五里寺址, 定陵寺址와 近來에 發掘調査된 黃海道 鳳山郡의 土城里寺址 등 지금까지 發掘調査되어 伽藍配置 形式을 알 수 있었던 모든 寺址가 一塔三金堂式 伽藍配置로 된遺址였다. 그러므로 적어도 高句麗가 平壤으로 都邑을 옮긴 뒤에 創建된 寺刹의 基本的인 伽藍配置 形式이 一塔三金堂式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勿論 지금 段階에서는 百濟의 漢城時代와 熊川時代의 伽藍配置 形式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비록 百濟로의 佛敎 傳播가 中國南朝의 東晉에서 부터라는 点에서 高句麗와는 다른 伽藍配置 形式이 百濟의 漢城時代에 採擇되었을 可能性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百濟와 高句麗와의 地理的 關係나 建國 緣由, 建築의 關連 등으로 보아 百濟에서도 一塔三金堂式 配置를 採擇하였을 可能性을 전혀 排除할 수는 없다.어떻든 日本의 飛鳥寺의 伽藍配置는 直接的적이든 혹은 中間에 百濟가 介在하였던지 間에 高句麗의 伽藍配置 形式의 影響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事實은 否認할 수 없는 것이다.

飛鳥寺의 塔基壇과 세 金堂基壇의 周圍에 建物 지붕에서 떨어지는 落水를 받기 위한 落水溝를 設置하고 있었던 것 역시 淸岩里寺址의 塔과 세 金堂基壇 周圍에서도 볼 수 있었던 施設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落水溝는 百濟나 新羅의 寺刹建物の 基壇 周圍에서는 아직 確認된 바 없으며, 역시 高句麗와의 關連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

飛鳥寺의 塔基壇과 中金堂基壇이 單層基壇이었던 것으로 報告되었고, 基壇은 花崗岩製 地台石에 撐柱 없이 凝灰岩製面石을 세웠으며 甲石은 發見되지 않았으나 缺失된 것으로 보고 있다. 日本의 古代에 있어서는 建物の 基壇 外裝石製를 우리나라와 같은 花崗岩을 使用하는 경우 보다 產出量이 많고 加工에 便利한 凝灰岩을 使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상황속에서도 飛鳥寺에서는 塔과 金堂基壇의 地台石 만이 아니라 花崗岩을 使用하고 있었다는 點은 注目할 만 한 일이다. 日本에서 建立된 最初의 本格的인 寺刹이란 點에서 寺刹에서 가장 重要한 建物인 塔과 中金堂 基壇에서 비록 地台石 만에서라도 花崗岩을 使用했다는 것은 그나마 高句麗나 百濟, 新羅에서 通常적으로 使用되는 基壇 外裝石材인 花崗岩의 傳統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왜냐면 飛鳥寺 뒤에 創建된 여러 寺刹에서는 많은 경우 基壇 外裝石材로 地台石을 비롯한 모든 部材를 凝灰岩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基壇 形式에 있어서는 高句麗의 것은 아직 잘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比較檢討 할 수 없는 형편이나, 百濟의 彌勒寺 各院의 塔基壇과 金堂基壇의 上層基壇의 形式과 같고, 또 單層基壇인 講堂基壇과도 꼭 같은 形式이었다. 그리고 新羅의 皇龍寺의 세 金堂의 上層基壇이나 單層基壇으로 된 九層木塔基壇, 그리고 統一期の 感恩寺 金堂基壇의 上層基壇, 그리고 單層基壇인 講堂基壇등이 모두 같은 形式이었다. 이들은 모두 石造基壇으로서 基壇 側面 面石 사이에 撐柱가 없는 基壇 形式이었다. <圖 5> 우리나라 寺刹의 木造建物の 石造基壇 側面に 撐柱가 나타나는 것을 百濟에서는 扶蘇山에서 發見된 基壇에서 確認된 바 있으나 新羅에서는 8世紀 中葉에 築造된 佛國寺에서 시작되며, 基壇 側面に 撐柱가 없는 形式이 古式임을 나타낸다.

그런데 飛鳥寺에서는 東金堂과 西金堂이 비록 自然石을 쌓은 基壇이기는 하나 二重基壇으로 만들어지고, 下層基壇 上面에 遮陽의 礎石이 있는 格式이 높고 古式의 基壇 形式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寺刹에서 가장 比重이 큰 建物인 塔과 中金堂이 治石된 石材로 外裝된 基壇이기는 하나 單層基壇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奇異하다. 百濟의 彌勒寺에서는 塔과 金堂이 모두 二重基壇으로서 塔과 金堂의 基壇 形式이 同一한 格式이었고, 新羅의 皇龍寺에서는 세 金堂이 二重基壇이었고, 塔은 單層基壇이었으나, 여기에는 基壇 周圍에 서로 높이가 다른 二重의 塔區를 돌려 二重基壇을 象徵하여 金堂보다 한 단 格이 높은 基壇 形式을 갖추었다. 그런데 飛鳥寺에서는 塔이나 中金堂에 비해 比重이 낮은 東·西金堂이 한 단 높은 格式의 二重基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理解하기 어려운 狀況이었다. 어쩌면 飛鳥寺의 塔이나 中金堂의 基壇이 寺刹 創建 후에 어떤 事情에 의해 改造된 것이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飛鳥寺 東·西金堂이 二重基壇이며 下層基壇 上面에 遮陽의 기둥을 받치는 것으로 보이는 礎石이 있는 事實도 高句麗의 安鶴宮址의 主要 建物の 基壇에서 볼 수 있었고, 淸岩里寺址의 塔과 세 金堂의 基壇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인데 飛鳥寺에서는 塔과 中金堂 基壇에서는 그와 같은 事實이 確認되지 않았던 것도 오히려 異常한 일이다. 따라서 이들 基壇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創建 당초에는 二重基壇이며 下層基壇 上面에 遮陽의 礎石이 있는 形式이었던 것을 어느 時期에 지금과 같은 基壇으로 改造된 것이 아닌가 하는 疑問을 더욱 짙게 한다. 어떻든 이와 같은 二重基壇의 下

層基壇 上面에 遮陽의 礎石이 設置되는 形式은 매우 이른 時期에 建立된 遺構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高句麗에서는 淸岩里寺址 以外の 寺址에서는 確認되지 않았고, 百濟에서는 扶餘에 都邑을 옮긴 直後에 創建된 것으로 생각되는 定林寺 金堂 基壇 〈圖 6〉에서만 볼 수 있었고, 新羅에서는 574年(眞興王 35) 丈六尊像이 鑄成되고 584年(眞平王 6)에 金堂이 造成되면서 本格的인 伽藍으로 建立된 皇龍寺의 세 金堂에서 만 볼 수 있었을 뿐이며 그 밖의 여러 遺蹟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宮闕이나 寺刹에서의 重要建物을 二重基壇으로 만들고 下層基壇 上面에 遮陽의 礎石을 設置하는 形式은 高句麗에서 시작하여 百濟와 新羅에 傳해지나 이들은 比較的인 이른 時期에 消滅되는 古式의 形式이었음을 알 수 있다. 日本에서도 日本 最初의 本格的인 伽藍이었던 飛鳥寺에서만 이와 같은 形式의 基壇이 採擇되었으며 그 밖의 遺蹟에서는 아직 確認되지 않았다. 그러나 建物 軸部에 기둥으로 支撐되지 않은 簡略化된 遮陽을 設置한 建物は 日本의 法隆寺 五層木塔과 金堂이 있고, 平安時代에 建立된 藥師寺三層木塔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기둥이 없는 遮陽은 礎石을 놓아 기둥에 의해 支撐되는 遮陽의 傳統을 簡略化시키면서 繼承한 形式이라고 理解할 수 있는 것이다.

飛鳥寺 木塔 基壇의 堀塲版築技法과 塔 心礎가 基壇 上面下 地中에 埋設된 形式과 같은 形式은 아직 高句麗寺刹에서는 確認되지 않았다. 寺刹의 建物 基壇이 堀塲版築技法으로 만들어진 것은 百濟에서는 定林寺의 現存하는 五層石塔의 基壇石 下部에서 確認된 創建時의 木塔 基壇의 것으로 보이는 堀塲版築이 있고, 金剛寺址의 塔, 金堂 및 中門의 基壇에서도 確認된 바 있다. 또 軍守里寺址 塔 基壇에서도 心礎가 基壇 上面 下 地中에 埋設된 것으로 보아 調査報告書에서는 言及되지 않았으나 堀塲版築技法으로 된 基壇이었을 것으로 推測된다. 新羅에서는 皇龍寺의 세 金堂의 基壇 특히 中金堂 基壇에서 堀塲版築技法이 明確히 나타났으며, 木塔 基壇에서는 堀塲하여 그 안을 번갈아 흙 대신에 큼직한 넷돌과 진흙을 다지면서 쌓아올린 堀塲版築技法을 應用하여 흙 대신에 넷돌을 使用한 基壇 構築方法을 採擇하고 있었다. 統一期 寺刹에서는 望德寺의 金堂 基壇이 版築技法으로 築土되지 않았으나 分명한 堀塲基壇이었음이 確認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堀塲版築技法은 三國時代의 百濟와 新羅에서는 寺刹의 重要 建物 즉 塔이나 金堂의 基壇등에서 採擇된 基壇 構築方法이며 基壇 構築方法으로는 가장 精誠드린 方法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確認되지 않는 高句麗 寺刹에 있어서도 그러하였을 것으로 믿어지며, 統一新羅時代에 들어서 는 그와 같은 技法이 簡略化되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塔의 心礎는 百濟의 軍守里寺址에서는 基壇 上面下 約1.5m 밑에 心礎 上面이 있었고, 金剛寺址에서는 別石으로 된 心礎는 아니었으나, 基壇을 風化岩盤을 꺼내어 그 속에 흙을 版築技法으로 쌓아 築造하였고, 中央에 岩盤을 圓形으로 刻出하여 그 上面에 舍利孔을 만들어 心礎의 役割을 하게 한 것이었으나 이 刻出된 岩盤 上面이 殘存한 基壇土 上面에서 約45cm 밑에 있었다. 彌勒寺址 中院의 塔은 木塔이었을 것으로 믿어지며, 그 心礎는 基壇土의 殘存狀況으로 보아 基壇 上面에 놓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新羅의 皇龍寺九層木塔의 心礎는 創建時부터 基壇 上面에 놓였던 것임이 確認되었다. 統一期의 四天王寺나 望德寺의 東·西塔 역시 그 基壇 上面에 心礎가 놓여 있다. 이

와 같은 心礎 設置 樣相을 보면 이른 時期에는 木塔의 心礎는 基壇 上面下 깊은 位置에 埋設되었고 時期가 내려오면서 점차 그 位置가 높아져 7世紀中葉頃에는 그것이 基壇 上面에 놓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高句麗에서는 아직 心礎 位置가 確認되지 않았고, 新羅에서는 皇龍寺 以前에 創建된 寺刹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 日本의 경우에는 飛鳥寺 뿐 만 아니고 後說하는 四天王寺의 木塔 心礎가 地中에 埋設되고 있었던 事實이 確認되고 있고, 奈良時代 後期에 들어서 創建된 觀世音寺등에서는 心礎가 基壇 上面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은 樣相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四天王寺伽藍 <圖 7>

四天王寺는 大版市 天王寺區 元町에 있는 格式 높고 規模가 크며 지금도 그 法燈을 이어오는 寺刹이다. 이 寺刹의 創建은 593년이며 648년에 佛像 4 軀를 塔에 安置하였을 때 쯤에 寺刹 모습이 거의 갖추어졌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講堂이나 廻廊등은 奈良時代 前期인 680年頃에 完成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⁷⁾ 四天王寺는 日本의 佛教 興隆에 큰 行跡을 남긴 聖德太子가 物部守屋이 일으킨 內亂을 平定하게 하면 四天王을 奉安하는 寺刹을 創建할 것을 發願하여 內亂이 平定된 뒤에 이 四天王寺를 세우기 시작한 것으로, 日本에서는 가장 이른 時期에 建立된 國家的인 寺刹이었다.

四天王寺는 創建 후 여러 차례의 災害을 당해 重建과 重修를 계속하여 왔으나, 1945年 第2次 世界大戰에 의해 全燒되고, 그 뒤 1955年 부터 1957年 사이에 5회에 걸쳐서 發掘調査가 이루어져 지금은 發掘 結果를 바탕으로 모든 建物を 鐵筋콘크리트造로 推定復元되었다. 이 寺刹은 發掘 以前부터 中門, 塔, 金堂 그리고 講堂이 南北一直線上에 配置되고, 中門에서 派生한 廻廊이 講堂 側面 앞쪽에 치우쳐서 당겨진 伽藍配置 形式을 갖는 寺刹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日本 古代 寺刹 가운데 이와 같은 伽藍配置 形式을 四天王寺式伽藍配置라고 그 寺刹名을 伽藍配置 形式名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 伽藍配置는 우리나라 百濟 寺刹의 基本的 配置形式인 一塔式伽藍配置와 같은 形式으로서 日本의 이 形式의 寺刹이 百濟伽藍의 影響으로 계획된 寺刹이라는 事實도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다.

發掘結果 各種 遺構들은 여러 차례에 걸친 重建 重修工事に 의해 破損되어 각 建物の 基壇 形式이나 築造技法등에 관한 詳細한 內容은 알 수 없었다. 塔基壇은 1935년에 있었던 再建工事時에 凝灰岩으로 外裝된 基壇과 그 周圍에 塼으로 築造한 落水溝, 基壇 南面 中央에 역시 凝灰岩으로 된 石階段등이 있고, 基壇 中央에는 基壇 上面下 약 3.3m에 心礎가 埋設되고 있는 事實을 알게 되었고, 1950年代의 發掘에서는 이와 같은 事實을 再確認할 수 있었다.

金堂 基壇 역시 凝灰岩으로 外裝한 石造基壇이었으며 基壇의 正, 後面 中央에 石造階段이 있었던 事實 以外에 基壇 細部 形式등에 관해서는 알 수 없었다. 講堂은 좀 늦은 奈良時代 前期에 처

7)[四天王寺] 日本文化財保護委員會, 1967, p. 232

음으로 建立되었고, 基壇은 凝灰岩으로 外裝된 石造基壇이었으나, 基壇의 側面 面石 사이에 撐柱가 있었는지의 如否는 塔이나 金堂의 基壇의 경우와 같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講堂 遺址에서 처음 세워진 建物の 지붕 한 쪽 隅角部가 颯風에 의하여 뒤집어져서 땅에 떨어진 것을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흙을 쌓아 建物を 再建하였기 때문에 그 지붕의 庄痕이 흙 속에 남아 있어 그 庄痕을 精密히 檢出해내어 지붕이 扇子椽으로 되고 下昂(尾樞)과 추녀(隅木), 연함(茅負)등의 木部形式과 추녀 끝에 매단 靑銅製 風鐸과 木部에 塗布된 丹青, 그리고 지붕에 이어진 기와들이 원래의 모습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日本의 古代 木造建物에도 扇子椽이 있었던 事實과 추녀 끝에 風鐸을 매다는 것, 그리고 木部에 丹青하고 있었던 事實들을 現物과 庄痕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中門을 基壇의 前面과 左右 側面을 瓦積基壇으로 만들었고, 그 建立時期는 奈良時代에 들어서의 일이었다. 廻廊 基壇은 伽藍의 外側과 內側 모두, 東·西廻廊의 中門에 設置된 東中門과 西中門을 境界로 그 北半은 凝灰岩으로 基壇을 外裝하고, 南半을 中門과 같은 瓦積基壇 위에 搏을 올려 化粧한 것이었다.⁸⁾

以上과 같은 四天王寺의 伽藍配置 形式과 發掘調査 結果 알려진 創建時의 建物들의 基壇등의 樣相을 보면, 四天王寺는 百濟寺刹의 影響을 強하게 받고 建立된 寺刹임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즉 伽藍配置 形式은 百濟의 基本的 伽藍配置 形式인 一塔式伽藍配置와 꼭 같은 것이다. 다만 百濟의 一塔式 伽藍에 있어서는 百濟가 扶餘로 遷都한 直後에 創建한 것으로 보이는 定林寺와, 그와 비슷한 時期에 創建된 軍守里寺址에서는 講堂 左右에 廻廊 즉 北廻廊이 存在하지 않았고, 獨立된 別途의 建物이 있었으나, 7世紀 中葉에 創建된 것으로 보이는 金剛寺에서는 講堂 側面 앞 쪽으로 치우친 位置에 닿는 北廻廊이 設置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北廻廊의 出現은 新羅에서는 8世紀 中葉에 建立된 佛國寺에서 처음 볼 수 있는 것이나 佛國寺에서는 이 北廻廊이 講堂 左右側面 中央에 닿아, 百濟의 경우와는 講堂 側面에 닿는 位置가 달랐다. 四天王寺의 北廻廊이 講堂 側面 앞 쪽에 치우친 位置에 닿는 것은 百濟의 金剛寺의 경우와 꼭 같은 것이며, 따라서 日本 古代 伽藍이 百濟의 影響을 받게 된 가장 初期의인 것이라 하더라도 百濟의 末期에 該堂되는 7世紀 中葉에 나타나는 伽藍形式의 影響을 받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奈良地方에 있어 四天王寺보다 좀 늦게 시작되고 거의 비슷한 時期에 完成된 것으로 보이는 山田寺의 경우는 같은 一塔式伽藍配置로 된 寺刹이나, 그것의 北廻廊은 講堂 側面에 닿지 않았고, 金堂과 講堂사이를 가로질러 설치되어 講堂이 廻廊 밖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앞에서 본 飛鳥寺의 경우 즉 中金堂과 講堂 사이를 가로질러 北廻廊이 놓인 것과 같은 形式이며, 山田寺는 飛鳥寺의 伽藍 形式을 원용한 一塔式伽藍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飛鳥寺의 北廻廊이 高句麗의 一塔三金堂式 伽藍을 그대로 模倣한 것이라면 이 山田寺는 그 部分에서 高句麗的 要素를 나타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基壇 形式에 관해서는 細部の인 狀況을 알 수 없었으나 적어도 四天王寺의 中門과 회랑의 一部가 瓦積基壇으로 된 점 역시 百濟의 影響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三國 가운데서

8) 前掲 註7. pp.231-239.

는 瓦積基壇을 百濟伽藍에서만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百濟의 軍守里寺址에서는 塔基壇이 半博 즉 長半形博을 나란히 세워서 돌린 博築基壇이었고, 金堂基壇과 講堂基壇 그리고 東·西廻廊 밖에서 金堂과 같은 線上에 위치한 두 建物の 基壇이 모두 암기와와를 使用한 瓦積基壇이었다. 金堂과 東·西廻廊 밖의 두 建物の 基壇은 全面을 암기와 몇장을 포개어 合掌式으로 세워서 外裝하였고, 兩側面과 後面은 암기와를 한 장씩 세워서 돌린 것이었으며, 講堂基壇은 몇 장 암기와를 겹쳐서 얹으면서 이어나간 基壇이었다. 이와 같은 瓦積基壇은 日本의 古代 寺刹에서는 比較的 많이 採擇되는 基壇形式으로서, 高麗寺, 北白川廢寺, 伊圓廢寺등에서 確認되었고, 博築基壇은 平城宮地 內의 一部 建物 基壇에서 確認되고 있다.

講堂基壇 부근에서 檢出된 지붕 壓痕에서 確認할 수 있었던 扇子椽은 日本에 現存하는 古代 木造建物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現存하는 古代 建物は 대부분이 지붕 네 귀 부분에서만 扇子椽 (隅扇椽)으로 만들거나, 椽木을 平行으로 配置한 것(平行椽)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古代에 建立된 木造建物は 남아있지 않으나, 적어도 近世에 建立된 傳統的 木造建物에서는 椽木을 모두 우자상 즉 椽木을 지붕 平面에 맞추어 마치 부채살 모양으로 配置하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椽木이 平行으로 配置된 부분이 없는 形式으로 만든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椽木의 配置方法은 古代의 扇子椽 技法을 그대로 固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日本의 古代 木造建物の 椽木 配置 方法과 우리나라 傳統的 木造建物の 椽木配置 方法을 보고, 四天王寺에서 檢出된 扇子椽의 壓痕을 본다면, 日本의 木造建物에 있어서도 가장 초기에 있어서는 지붕 椽木을 扇子椽으로 꾸미고 있었던 事實을 알게 되고, 그것은 역시 우리나라 古代 木造建物の 扇子椽과 꼭 같은 것이었음을 알게 한다. 日本의 現存 古代 木造建物에서 扇子椽이 없고 지붕 네 귀에서만 扇子로 椽木을 配置하거나 椽木 모두를 平行으로 配置한 것 만 남아 있다는 事實은 日本에서는 比較的 이른 時期에 扇子椽 技法을 잊었고, 좀 더 쉽게 그리고 計劃的 規格的으로 椽木을 配置하는 方法으로 바꾸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四天王寺 講堂 지붕 壓痕 끝에서 發見된 靑銅製風鐸은 지붕 추녀 끝에 매달았던 것이며, 이와 같은 風鐸은 우리나라 百濟의 彌勒寺 東塔址와 統一新羅 初期에 創建된 感恩寺의 金堂址에서도 發見된 바 있다. 이와 같은 事實로 보아 우리나라나 日本의 古代 寺刹에서는 主要 法堂 등의 建物 지붕 추녀 끝 또는 사례 끝에 風鐸을 매다는 것이 普遍化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 있는 石塔 屋蓋石의 隅角部에는 風鐸을 달기 위한 것으로 믿어지는 구멍이 뚫려 있고, 高麗時代에 建立된 月精寺八角九層石塔에는 지금도 風鐸이 달려 있어 이와 같은 傳統은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계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 川原寺伽藍 <圖 8>

川原寺址는 奈良縣 高布郡 明日香村 川原에 있으며 飛鳥寺址發掘에 이어 1957년에 發掘調査되었다. 調査結果, 伽藍 南北中軸線上에 南쪽에서 南門, 中門, 中金堂 및 講堂이 一列로 南向하여 配置되고, 中門 側面에서 東西로 뻗는 南廻廊이 北折하여 다시 西, 東折하여 中金堂 基壇 앞쪽에

치우친 位置에 닿는 北廻廊이 되고, 이들 廻廊에 둘러쌓인 空間안의 東쪽에 木塔, 西쪽에는 東向 즉 塔을 향한 西金堂을 配置하였으며 東·西廻廊의 延長線과 講堂 뒤를 僧房이 둘러쌓은 形式의 伽藍配置였다.

川原寺는 日本에서 建立된 最初의 官立寺院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의 最高 最尊의 寺刹이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 寺刹의 創建時期에 관해서는 여러 說이 있어 일정하지 않으나 대략 662年(日本 天智天皇1)에서 667年頃 사이에 建立工事が 시작되고 685年 天武天皇이 寺刹을 방문하였을 때쯤에 完工된 것으로 보는 見解가 一般的이다. 官立寺院의 建立年限이 이와 같이 많은 歲月을 必要로 했다는 事實은 당시의 日本朝廷에서의 王權의 不安定과 그에 따른 經濟力의 貧弱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 寺刹의 伽藍配置 形式은 당시 日本의 古代 伽藍에서는 前例없는 特異한 形式으로서 學界의 많은 關心을 불러일으켰다. 日本에서 처음으로 建立된 本格的인 伽藍이었던 飛鳥寺 伽藍이 거의 完全한 高句麗의 伽藍配置로 된 寺刹임이 밝혀진 뒤를 이어 시작된 川原寺址의 發掘에서 아직 韓半島에서나 中國에서도 밝혀진 바 없는 이와 같은 特異한 配置 形式을 갖는 伽藍이 發見됨으로써 日本의 古代 伽藍의 多樣함에 크게 놀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 川原寺의 伽藍 특히 그의 中心施設이라고 할 수 있는 中門, 塔, 西金堂, 中金堂, 講堂 그리고 廻廊과의 關係를 볼 때, 이것은 앞에서 말 한 飛鳥寺伽藍配置에서 東金堂을 除去하고, 中央에 있던 塔을 東金堂이 있던 位置로 옮기고, 北廻廊을 中金堂 側面 앞쪽에 치우친 位置에 닿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分析을 통해서 본다면 이 川原寺의 伽藍配置는 飛鳥寺 伽藍配置를 바탕으로 그것을 日本의 趣向 또는 다른 어떤 事情에 의하여 簡略化시킨데서 나타난 形式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역시 그 伽藍의 始源은 高句麗의 基本的인 伽藍配置 形式인 一塔三金堂式 伽藍配置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川原寺伽藍과 흡사한 伽藍을 갖춘 寺址가 日本에서 또하나 發見 되었다. 그것은 韓半島 內에서 新羅가 三國統一을 達成하는 過程에서 百濟를 救援하려하여 大軍을 派遣하였으나 羅·唐聯合軍에 大敗하여 日本이 新羅의 侵攻의 危脅을 느껴 急據 王都를 大津宮(滋賀縣 大津市)로 옮기면서 그 附近의 여러 곳에 官立寺刹을 建立하게 되는데 이 때 세워진 寺刹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되는 逸名寺址로서 南滋賀廢寺라고 불리우는 遺址이다.

이 南滋賀廢寺는 1928年과 1938年에 發掘調査되어 伽藍 中心部の 建物 配置 樣相이 밝혀졌다. 그것은 역시 伽藍 中軸線上에 中門, 金堂, 講堂이 配置되고 中門 側面에서 金堂 側面 앞쪽으로 連結되는 廻廊을 돌리고, 이 廻廊에 둘러쌓인 空間 안 東쪽에 木塔을, 西쪽에 川原寺의 경우와는 달리 南向한 小金堂(西金堂)을 配置하고, 講堂의 兩側과 後方に 僧房을 돌린 것이었다. 發掘 당시는 異色的인 伽藍配置로 된 寺址로서 學界의 關心을 끌었으나 川原寺의 伽藍配置 形式이 밝혀짐에 따라 그와 恰似한 伽藍이며 川原寺의 뒤에 나타날 수 있는 伽藍임이 認識되게 되었다. 이 南滋賀廢寺와 川原寺의 伽藍配置를 比較해 볼 때, 飛鳥寺伽藍을 始源으로 삼고 川原寺에서 東金堂을 省略하였으며, 南滋賀廢寺에서는 西金堂을 南向시킨 變化를 보인 것이라고 판단되고, 寺刹의 創建時期를 보아도 이와 같은 順으로 變化된 것임을 立證해 준다.

日本の 古代 寺刹 伽藍配置 形式 가운데는 日本 固有의 伽藍配置 形式이라고 말하여지는 法隆寺式伽藍配置와 法起寺式伽藍配置가 있다. 法隆寺式伽藍配置는 現存하는 法隆寺 西院伽藍의 建物配置形式을 말 하는 것이며, 創建法隆寺는 앞에서 말한 바 있는 若草伽藍을 말 하는 것으로 그 伽藍은 一塔式伽藍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現存 法隆寺 西院伽藍은 中門과 講堂을 南北一直線上에 配置하고 中門 側面에서 講堂 側面 앞쪽에 닿는 廻廊에 둘러쌓인 空間 안에 西쪽에 木塔, 東쪽에 南向한 金堂을 配置한 形式이나, 1927년에 실시된 調査에 의하여 講堂 側面に 닿는 北廻廊이 원래는 講堂과 塔, 金堂 사이를 가로질러 지나가도록 되었던 事實이 밝혀졌다. 法起寺式伽藍配置는 法隆寺式伽藍配置에서 塔과 金堂의 位置를 서로 바꾸어 놓는 形式的 것이며, 北廻廊은 講堂 側面に 닿는 경우가 많다. <圖 9>

이와 같은 伽藍配置 形式을 볼 때 法起寺式伽藍配置는 앞에서 말한 川原寺 伽藍의 變化 形式인 南滋賀廢寺의 中金堂을 그대로 講堂으로 바꾸어 한 伽藍으로 만든 것이라고 理解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法起寺式伽藍配置의 테두리 속에 包含되는 奈良時代に 九州 太宰府에 建立된 觀世音寺의 伽藍配置는 이 金堂이 南向하지 않고 東쪽의 塔을 向한 東向 建物로 만들어졌다. 이 伽藍은 오히려 川原寺 伽藍의 中金堂을 講堂으로 바꾼 形態로서 伽藍의 形式 變化 過程으로 본다면 이 觀世音寺 伽藍의 形式이 先行되는 形式이라고 생각된다. 어떻든 이와 같은 伽藍配置 形式的 變化 狀況을 볼 때, 이들 法起寺式과 法隆寺式 伽藍配置는 川原寺 또는 南滋賀廢寺의 略化 形式으로 發生한 것이며 그 發生 順序로는 法起寺式伽藍에서 塔과 金堂의 위치를 바꾸어 法隆寺式伽藍이 나타난 것이라고 理解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日本 固有의 伽藍配置 形式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伽藍配置도 그 源流를 찾는다면, 飛鳥寺의 伽藍配置, 그리고 高句麗의 기본적인 伽藍配置인 一塔三金堂式伽藍配置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現存 法隆寺에는 五層木塔과 金堂 建物の 斗栱이 日本에서 말 하는 所謂 雲形肘木(雲形첨차)로 된 形式이며, 그들 建物の 양식은 7世紀 初頭に 創建된 法隆寺의 前身 伽藍의 樣式을 踏襲하여 세워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 雲形첨차는 그 밖에도 몇몇 日本의 古代 木造建物들과 法隆寺에 所藏된 官殿形佛龕인 玉虫厨子에서도 볼 수 있는 形式이다. 이와 같은 斗栱形式이 百濟에서 日本으로 傳해진 形式일 可能性은 매우 큰 것으로 느껴지나 이를 立證할 資料는 없다. 그 밖에도 앞에서 말한 바 있는 法隆寺의 木塔과 金堂의 初層 지붕 처마 밑에 架構된 遮陽(裳階)은 기둥을 省略한 것이기는 하나 高句麗나 百濟 또는 新羅의 初期 木造建物에 架構된 것으로 믿어지는 遮陽의 退化 形式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法隆寺金堂의 二層 軸部와 木塔 二層 以上の 塔身에 設置된 欄干의 所謂 古式亞字文의 文樣 形態는 統一新羅의 感恩寺 西三層石塔의 內部 積心 속에서 發見된 石材에 彫刻된 古式亞字文이나 南原 實相寺百丈庵三層石塔의 塔身에 刻出된 欄干文樣 그리고 碑岩寺에서 發見되고 現在 國立中央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己丑銘阿彌如來諸佛菩薩石像에 刻出된 佛台座에 나타난 欄干의 古式亞字文과 그 文樣構成이 꼭 같은 것임을 알 수 있고, 法隆寺 金堂 本尊佛 위의 寶蓋 形式이 역시 統一新羅時代의 것으로 생각되는 松林寺塔堵 속에서 發見된 舍利莊嚴具의 寶蓋 모습과 그 構成이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法隆寺의 여러 建築的 要

素들이 高句麗·百濟·新羅에서 確認되는 建築的要素들과 共通된다는 事實은 法隆寺가 이들의 影響으로 形成된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5) 藥師寺伽藍 <圖 10>

藥師寺는 茶良市 西京町에 있으며 近來 西塔을 비롯한 建物들을 復元하여 원래의 伽藍 모습을 再現하게 되었다. 復元은 寺域에 대한 徹底한 發掘調査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며, 그 伽藍配置形式은 中門, 金堂, 講堂을 南北一直上에 配置하고, 金堂 南쪽 東·西에 三層木塔을 配置하였으며, 中門 側面에서 나온 複廊인 廻廊이 塔과 金堂을 둘러싸아 講堂 側面 中央에 닿게 設置되었다. 이와 같은 伽藍配置 즉 雙塔式伽藍配置를 日本에서 藥師寺式伽藍配置라 불려 이 寺刹名이 伽藍配置形式名이 되고 있다.

이 藥師寺는 7世紀末 宮闕이 藤原宮였을 때 天武天皇 皇后의 病患治癒를 祈願하여 現 橿原市 木殿町에 역시 藥師寺란 이름으로 創建되었던 것이다. 709년 宮闕이 平城宮으로 옮겨지게 됨에 따라 藥師寺 建物을 그대로 現 藥師寺에 옮겼던 것이라고 傳하며 藥師寺가 全國의 僧侶를 統率하고 寺刹을 統轄하는 官寺로 繁榮했다. 또 藤原宮時代에 있었던 藥師寺 자리는 本藥師寺로 불리어 그 遺址가 남아있다. 이 藥師寺의 伽藍配置는 우리나라 統一新羅時代에 創建된 많은 寺刹에서 採擇된 雙塔式伽藍配置와 거의 같은 伽藍配置形式이며 이는 新羅의 西天王寺에서 시작되고 望德寺, 感恩寺, 佛國寺등 많은 寺刹 또는 그의 遺構가 남았다. 新羅의 雙塔式伽藍의 경우는 四天王寺와 望德寺등 雙塔이 木塔으로 된 경우도 있으나 感恩寺를 비롯한 대부분의 寺刹은 石塔으로 된 寺刹이었다. 그런데 日本의 藥師寺式伽藍配置와 新羅의 雙塔式伽藍의 伽藍配置 形式上的 根本的인 差異點은 新羅에서는 金堂基壇 側面 中央에서 東·西廻廊에 到達하는 翼廊이 設置되는 것이며 따라서 金堂基壇에는 基壇 前面 또는 前·後面만이 아니고, 側面 中央에도 翼廊으로 내려가는 階段이 設置되는데 比해 藥師寺式伽藍配置에서는 翼廊이 없는 점이다. 그러나 藥師寺 金堂에서는 翼廊이 없는 데에도 基壇 側面 中央에 階段이 設置된 點은 注目되는 일이다. 아직 確實하게 밝혀진 바 없으나 藥師寺의 前身伽藍인 本藥師寺는 翼廊이 있었고 따라서 그 上面으로 내려가는 階段이 있어, 그 階段만이 새로운 藥師寺에서 재현된 것인 지도 모르겠다. 또 新羅의 雙塔式伽藍에서는 그 初期의 것은 左右에 닿지 않고, 別途의 獨立된 東·西로 긴 建物이 있어, 東·西廻廊이 이 建物의 外端 前面에 닿는 形式이었으며, 이것은 앞에서 말 한 바와 같이 다른 形式의 伽藍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 講堂 左右의 別途의 獨立된 建物은 점차 그 東·西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8世紀 中葉에 建立된 佛國寺에서 처음으로 北廻廊으로 바뀌어 講堂基壇 側面 中央에 닿게 된다. 그런데 藥師寺의 伽藍에서도 北廻廊이 講堂 側面 中央에 닿는 것으로 보아 이것 역시 佛國寺 이후에 나타나는 雙塔式伽藍의 影響은 받은 것임을 立證하는 形式이라고 생각된다. 北廻廊이 나타나서 講堂基壇 側面에 닿는 方式은 百濟에서는 金剛寺址에서 처음 北廻廊이 나타났으며 그것은 講堂基壇 側面 앞쪽에 치우쳐서 設置되었고, 新羅에서는 그 보다 훨씬 늦은 佛國寺에서 北廻廊이 나타났으며 그것은 講堂基壇 側面 中央에 닿게 되었다. 지금으로서는 北廻廊에 講堂基壇 側面이 닿는 方

法이 밝혀진 것은 百濟의 金剛寺와 新羅의 佛國寺 뿐이며, 그 당는 位置가 金剛寺와 佛國寺에서 서로 다르지만, 그 두 狀況 만으로 百濟와 新羅의 北廻廊이 講堂基壇 側面에 당는 方式의 差異라고 斷定하기는 빠르나, 分明히 百濟伽藍의 影響으로 된 日本의 四天王寺가 講堂基壇 側面 앞쪽에 당고 新羅의 雙塔式伽藍의 導入으로 나타난 것으로 믿어지는 藥師寺에서는 講堂基壇 側面 中央에 당는 것으로 보아 이 두 形式 역시 前者는 百濟式, 後者는 新羅式이라고 해도 無妨할 것 같다. 그리고 日本에서는 이와 같은 細部 形式조차도 百濟나 新羅의 것을 忠實히 따르고 있다는 것을 立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할 때 日本의 藥師寺式伽藍配置에서 金堂 左右에 翼廊이 없다는 것이 理解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雙塔式伽藍이 처음으로 導入된 本藥師寺에서는 翼廊이 있었던 것이나, 그 뒤 日本의 趣向에 따라서 이 翼廊이 省略된 것이 아닌가 하는 推測도 可能하나 지금으로는 그것을 밝힐 수 없는 情形이다. 또 우리나라 雙塔式伽藍에서는 廻廊이 複廊으로 된 것을 찾지 못했으며 藥師寺의 複廊으로 된 廻廊은 新羅의 皇龍寺 또는 百濟時代에 創建되고 統一新羅時代에도 크게 經營되어 왔던 것으로 믿어지는 彌勒寺에 設置된 複廊을 意識하여 그와 같은 複廊이 採擇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日本의 伽藍配置는 이 藥師寺式伽藍配置를 바탕으로 삼고 日本的으로 變化 發展시킨 形式으로 생각할 수 있는 東·西塔이 金堂과 같이 配置되었던 廻廊에 둘러싸인 空間에서 벗어나 廻廊 밖으로 자리를 옮기고, 塔이 獨立되어 廻廊에 둘러싸이게 된 伽藍形式이 나타나고 그것이 全國에 建立되게 된 國分寺의 伽藍配置의 基本形式이 된다.

(6) 陸奥國分寺伽藍 <圖 11>

國分寺는 741年 當時 日本의 天皇이었던 聖武가 國內에 疫病과 飢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國內外 情勢도 不隱하였기에 國家鎮護를 祈願하기 위하여 60余個의 行政區劃으로 分割되어 各己 國으로 呼稱했던 여러 나라에 國分僧寺와 國分尼寺를 建立할 것을 命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都邑인 奈良에는 各國의 國分寺의 總括寺利인 總國分寺로서 東大寺를 建立하였다.

東大寺는 743년에 巨大한 靑銅坐佛인 盧舍那佛을 鑄造한 것을 시작으로 國力을 기울여 44년이란 日本에서의 寺利 建立期間으로는 比較적 짧은 期間에 日本 歷史上 그 規模가 가장 큰 伽藍으로 完成시킨 寺利이었다. 이 東大寺의 伽藍은 앞에서 말 한 藥師寺伽藍의 日本式 變化形式이라고 볼 수 있는 東·西塔이 寺利의 中心部 즉 金堂을 둘러싼 中門 側面에서 派生하여 金堂과 講堂 사이에 設置된 北中門의 側面에 당는 複廊으로 된 廻廊에 둘러싸인 空間 밖으로 나가, 中門 앞 左右에 멀리 떨어져서 單廊으로 된 廻廊에 둘러싸여서 配置되었다. 또 講堂은 北中門 뒤에 建立되고 講堂 뒤와 兩 옆에는 巨大한 僧房이 配置되고 講堂 左右와 後面에 設置된 通路에 의해 僧房과 連結되었고, 金堂基壇 側面 앞쪽에 치우쳐서는 東·西廻廊에 당는 翼廊이 만들어졌다. <圖 12>

그런데 이와 같이 金堂空間과 塔空間이 각각 廻廊에 둘러싸인 獨立된 空間으로 만들어지며, 接觸되는 위치에는 차이가 있으나 金堂에 翼廊이 設置된 점 등으로 보아 後說하는 統一新羅 初期에 創立된 것으로 보이는 高仙寺伽藍의 配置形式 <圖 13> 과 無關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또

金堂을 둘러싼廻廊이 複廊이라는 것도 藥師寺伽藍에서 볼 수 있었으나 멀리는 百濟의 彌勒寺와 新羅의 皇龍寺의 複廻廊과의 關連을 無視할 수 없을 것 같다.

陸奥國分寺는 國分寺建立令에 의해 陸奥國에 建立된 國分僧寺이다. 陸奥國이란 日本의 現 仙台市를 中心으로 關東地方의 東北部에서 現 岩手縣에 걸친 地域이며 日本 本州島의 中心部를 지나 背樑山脈을 境界로 太平洋을 面한 廣大된 範圍를 갖는 區劃이었으며 當時 日本에서는 邊境에 속하는 地域이었다. 國分寺 遺址는 仙台 近郊에 있었으나 그 寺刹의 建立年代와 消滅時期에 관해서는 正確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 遺址에는 後代에 세워진 國分寺란 이름의 寺刹이 있고, 또 木塔基壇이 礎石을 露出시킨 狀態로 남아있었다. 이 遺址에 대한 發掘調査는 1950年에서 1954年 사이에 5次에 걸쳐서 實施되어 金堂을 中心한 一廊과 그 東쪽에 塔을 中心한 一廊이 있었고 金堂 뒤에는 講堂과 鐘·經樓 및 僧房의 建物址들이 確認되었다.⁹⁾

調査結果 伽藍은 金堂을 中心한 一廊(金堂院)과 塔을 中心한 一廊(塔院)이 나란히 並置된 形式이며, 金堂院은 金堂基壇 側面 앞쪽에 치우쳐서 翼廊形의 北廻廊이 東·西로 나가 南折하여 다시 西·東折하여 中門·側面에 닿는 複廊을 가졌고, 金堂 뒤에는 講堂을 配置하고, 金堂과 講堂 사이 東·西에 南北으로 작고 긴 規模의 鐘樓와 經樓가 있었다. 塔院은 金堂院 東쪽에 떨어져 있었으며 金堂 東쪽에 心心距離 275尺(83.3m) 떨어져서 塔이 있고, 그 주위에 單廊으로 된 平面 長方形으로 設置된 廻廊을 돌리고 있었다.

金堂基壇은 凝灰岩으로 된 地台石과 面石을 갖춘 基壇이었으나 地台石은 面石 밑에 形式的으로 나란히 놓은 것이고 甲石은 원래부터 없었던 것 같다. 基壇의 規模는 正面 104.6尺(31.7m), 側面 65.5尺(19.7m) 정도이며 높이는 基壇 南面에서 약 3尺(0.9m) 정도로 推定되었다. 基壇土는 掘擴하지는 않았으나 黃褐色粘土와 黑褐色粘土를 번갈아 쌓아 올린 版築工法으로 만들어졌다. 金堂 建物은 남아있던 한 개의 礎石과 몇몇 確認된 礎石 밑의 積心으로 正面 7間, 側面 4間の 建物로 推定되었다.

中門은 基壇 範圍가 確實하지 않았으나 礎石 밑 積心이 남아있어 正面 5間, 側面 2間の 建物이었으며, 側面 柱間은 그 左右에 連結된 複廊의 廻廊樑間의 柱間보다 좀 넓어 廻廊과는 다른 架構로 된 中門建物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廻廊은 金堂基壇 側面 앞쪽에 치우쳐서 시작되어 南쪽 中門基壇 側面에 닿는 複廊으로 廻廊에 둘러 싸인 內部空間에는 아무 施設도 없는 마당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廻廊 遺構는 몇몇 礎石들과 礎石이 없어지고 그 밑에 깔린 積心들이 남아 있었다. 이들에 의해 復元된 廻廊은 南廻廊이 中門을 中心으로 각각 9間이고 北廻廊은 金堂을 中心으로 각각 7間이었으며, 이들의 兩端 두 칸은 東·西廻廊의 南端과 北端의 두칸이 되고, 東·西廻廊은 이들 南·北廻廊의 兩端 두 칸씩을 합하여 각각 19間이었다.

講堂은 金堂 뒤인 北廻廊 北쪽에 心心距離 142尺(43m) 떨어져서 設置되어 있었다. 基壇의 遺存

9) [陸奥國分寺跡]陸奥國分寺跡發掘調査委員會, 1961, 參照.

(圖面中 日本先史는 中間氏論文에서 伽藍配置圖는 [日本の建築](1)에서 轉用)

상태는良好하지 못하여 그全體 모습을 알 수 없었으나 基壇 規模는 正面 113.5尺(34.4m), 側面이 67.1尺(20.3m)程度로 推定되었다. 基壇은 凝灰岩의 板石을 세워서 밑에 形式的인 地台石을 받쳤고, 正面 中央에는 石造階段의 痕跡이 있었다. 基壇 上面에는 몇몇 礎石 밑의 積心이 남아 있었고, 이들 積心에 의하여 講堂建物は 正面 3間, 側面 4間이며 邊柱間이 다른 柱間보다 좁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講堂 뒤에는 講堂基壇 後面中央에서 突出되는 通路에 連結된 僧房이 있었다.

塔基壇은 凝灰岩으로 된 形式的인 地台石을 갖는 面石과 甲石으로 된 基壇으로서 그 規模는 一邊 55尺(16.7m)余로서 높이는 4尺(1.3m)程度였다. 基壇土는 넓게 地下를 2尺(0.6m)程度 파내려가서 築土한 堀塲版築工法으로 만들고 있었다. 木塔 初層은 方 3間임이 남아 있던 心礎와 礎石들에 의해 밝혀졌다.

塔院廻廊은 南廻廊 中央에 廻廊基壇보다 넓은 門基壇이 있을 것으로 豫測 되었으나 門에 該當되는 位置에서 發見된 礎石 밑 積心은 廻廊 積心과 같은 線上에 있어, 別途 架構된 門建물이 없고, 南廻廊 中央의 두 칸을 利用한 出入施設이 있었던 事實을 알게 되었다. 廻廊의 柱間은 南·北廻廊이 12間, 東·西廻廊은 南·北廻廊의 兩端間을 合하여 13間이었으며, 廻廊 南邊이 金堂 東廻廊의 中央部에서 좀 北으로 치우친 位置에 該當되는 位置에 있었다.

위와 같은 陸奧國分寺의 伽藍配置形式과 恰似한 伽藍을 갖는 것으로는 紫香樂宮址로 생각되는 台地上에 建立되었던 甲可寺가 있다. 甲可寺는 甲可宮國分寺라고도 불리우는 國分寺建立令에 立脚하여 國分寺로 建立된 寺刹이었으며, 그 遺址에는 各種建物の 礎石들이 露出되어 있었다. 甲可寺址에 대한 本格的인 發掘調査는 實施된 바 없었으나 地表에 露出된 各種 遺構에 의하여 그 伽藍配置形式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에 의하면 塔院과 金堂院이 各各 獨立된 空間으로 東西로 並置되고, 塔院은 南廻廊 中央에 中門을 갖는 長方形으로 設立된 廻廊 안쪽 좀 北쪽에 치우쳐서 木塔을 配置하고 있었다. 金堂院은 南廻廊을 塔院 南廻廊과 一直線을 이루고, 金堂院 東廻廊이 塔院 西廻廊과 共用되면서 塔院 西쪽에 配置되었다. 金堂院 中門 北쪽에 位置한 金堂基壇에는 基壇 側面 앞쪽으로 치우쳐서 東·西廻廊에 닿는 翼廊이 있었다. 金堂院 東, 西廻廊은 翼廊을 지나 더 北으로 延長되어 塔院 西廻廊과 같은 位置까지 나아가며 이 東·西廻廊의 北壇 3間은 別途로 架構된 建物로 만들어지며, 北廻廊은 없었다. 講堂은 金堂 뒤에 廻廊에 接觸되지 않은 狀態로 獨立되어 設置되고 講堂 뒤에는 東·西僧房이 縮小된 形式의 三面僧房을 形成했고 北僧房으로는 講堂基壇 後面 中央에서 突出된 通路에 의하여 連結되었다. <圖 14>

以上과 같은 陸奧國分寺나 甲可寺의 伽藍配置形式 특히 甲可寺伽藍에서 더욱 강하게 統一新羅 時代 初期인 7世紀末頃에 創建된 高仙寺伽藍과 類似함을 느끼게 한다. 高仙寺址는 慶州 暗谷洞에 있었으며, 寺址 一帶가 德洞뎌에 의해 水沒 되어 1975년에 發掘調査되고 寺址에 있던 三層石塔은 現 慶州博物館 庭園에 移建되었다. 高仙寺 創建年代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686년에 入寂한 元曉大師가 居住한 일이 있었고, 石塔의 規模形式으로 보아 感恩寺와 거의 같은 時期 또는 좀 늦은 時期가 아닐까한다. <圖 13>

寺址 發掘結果 高仙寺伽藍은 金堂院과 塔院이 東·西로 並置되어, 金堂院에는 中央에 翼廊을 갖춘 金堂을 두고, 金堂 뒤에 講堂, 金堂 앞에는 中門을 두었고, 中門 左右에서 나온 廻廊이 講堂 左右에 세워진 別途 建物 外端 前面에 接하고 있었다. 塔院은 中央에 石塔을 두고 周圍에 廻廊을 돌렸으며, 南廻廊 中央에는 門으로 보이는 建物遺構가 없었고, 塔院 南廻廊과 金堂院 南廻廊은 一直線을 이루어 있고, 金堂院 西廻廊 南半部와 塔院 東廻廊이 接觸하여 이 부분만 複廻廊 같이 만들어져 있었다.

塔과 金堂을 中心한 一廓이 서로 廻廊에 둘러싸인 別途空間에 獨立되어 伽藍을 形成하고 있는 點이 비록 塔院과 金堂院의 位置 高仙寺의 경우와 陸奧國分寺 및 甲可寺와는 서로 바뀌어지기는 하였으나 共通點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兩院의 南廻廊이 一直線을 이뤘고 두 院의 境界를 共有하거나 接觸하고 있는 點은 高仙寺와 甲可寺에서는 꼭 같았다. 또 塔院에 中門建物を 別途로 設立하지 않았던 點은 高仙寺와 陸奧國分寺에서 共通된 點이기도 하다. 크게 차이나는 點은 高仙寺伽藍에서는 講堂 左右에 後에 北廻廊으로 변하는 別途 建물이 있었으나, 陸奧國分寺나 甲可寺에는 金堂 左右의 翼廊이 北廻廊이 되고 講堂은 그 뒤에 獨立되어 建立된 點이다.

陸奧國分寺나 甲可寺의 伽藍形式은 앞에서 말한 東大寺伽藍에서 서쪽 塔院을 除去한 形式으로도 理解할 수 있다. 그러나 東大寺伽藍의 塔을 中心한 一廓과 金堂을 中心한 一廓이 각각 廻廊으로 둘러싸인 空間으로 分離 獨立되는 形式은 이미 7世紀末頃에 創建된 高仙寺伽藍과 無關하지 않았을 것이며 甲可寺伽藍과 高仙寺伽藍 사이에는 더욱 강한 影響關係가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金堂 左右에 翼廊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北廻廊이 없고 翼廊이 北廻廊의 役割을 하기 시작한 것은 川原寺와 川原寺와 같은 類形의 伽藍配置形式을 갖는 南滋賀廢寺에서 이나, 이것이 一般化되는 것은 塔이 金堂을 中心한 一廓에서 밖으로 떨어져서 獨立되는 東大寺 이후의 伽藍에서 볼 수 있다. 東大寺와 같은 類形에 속하는 大安寺伽藍과 興福寺伽藍이 그러하였고, 塔址가 確認되지 않았던 下野國分尼寺들이 있다. 百濟廢寺만은 우리나라 雙塔式伽藍에서 翼廊 뒤의 廻廊을 除去한 形式 즉 雙塔은 廻廊에 둘러싸인 空間內에 配置하고 講堂은 廻廊 밖에 獨立시킨 形式이어서 매우 興味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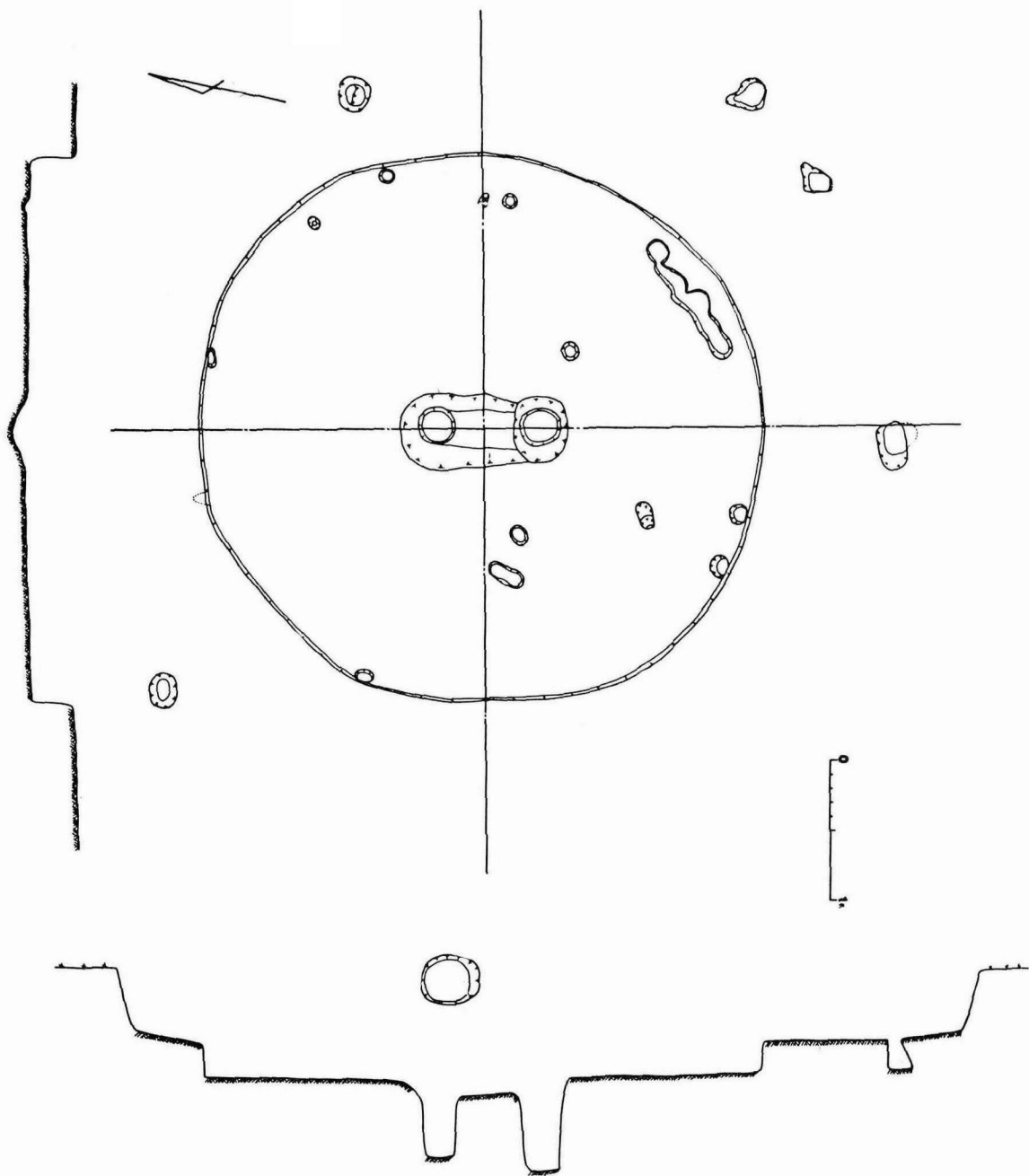
日本에서의 이와 같은 金堂 左右의 翼廊을 北廻廊으로 삼고 그 앞에 廻廊이 展開되고 塔이 밖으로 나가는 伽藍形式은 中世에 들어 11世紀 初期부터 流行하는 日本의 個性이 뚜렷이 나타나는 淨土臨池伽藍으로 發展해 나간다.

結 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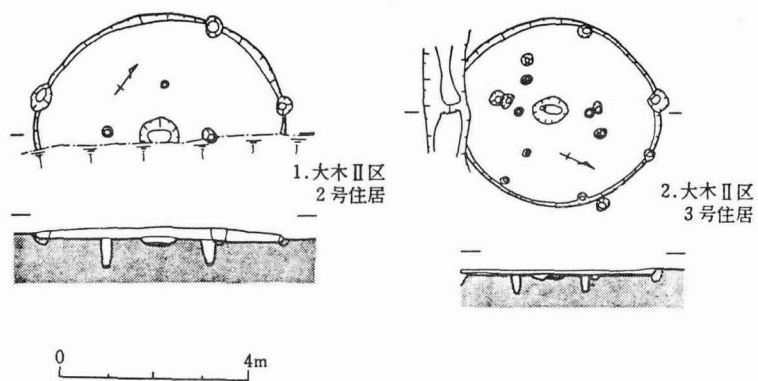
日本 古代伽藍에 나타난 여러가지 狀況들을 우리나라 古代伽藍과의 比較를 통해 살펴볼 때 日本에서 本格的인 伽藍의 시작은 6世紀末부터 9世紀에 이르는 時期의 모든 伽藍이 高句麗·百濟 그리고 統一新羅時代의 伽藍과 깊은 關連을 갖고 이들의 影響下에 營造 經營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一部 伽藍에서는 그것의 省略 形式으로 日本의 個性을 나타내는 것도 있었다. 飛鳥寺와 四天王寺 그리고 藥師寺의 경우는 각기 高句麗 百濟 그리고 統一新羅의 가장 基本的인 伽藍配置形式을 거

의 그대로 受容했고, 특히 高句麗의 基本的 伽藍配置인 一塔三金堂式伽藍配置는 飛鳥寺에 繼承되어 이어서 川原寺伽藍과 法起寺式 및 法隆寺式 伽藍配置 등 日本에서 創案된 伽藍配置形式을 그것의 省略形式으로 派生시켰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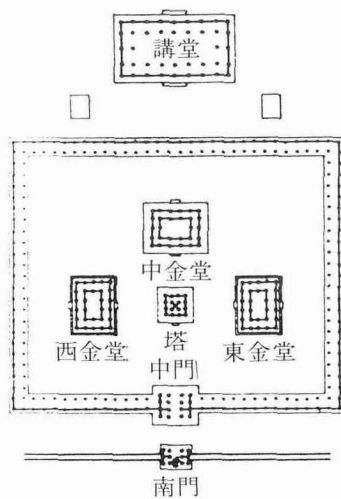
時期가 내려와서 8,9世紀에 들어서면서는 그 以前에 볼 수 있었던 三國의 것의 直模形式으로 導入했던 伽藍形式에서, 이것을 바탕에 두면서도 日本的 個性을 좀 더 強하게 나타낸 伽藍形式으로 점차 發展 定着시켜 나갔다. 이에 의해 나타난 것이 東大寺伽藍을 바탕으로 한 여러 國分寺伽藍들이며 甲可寺와 陸奧國分寺 등의 伽藍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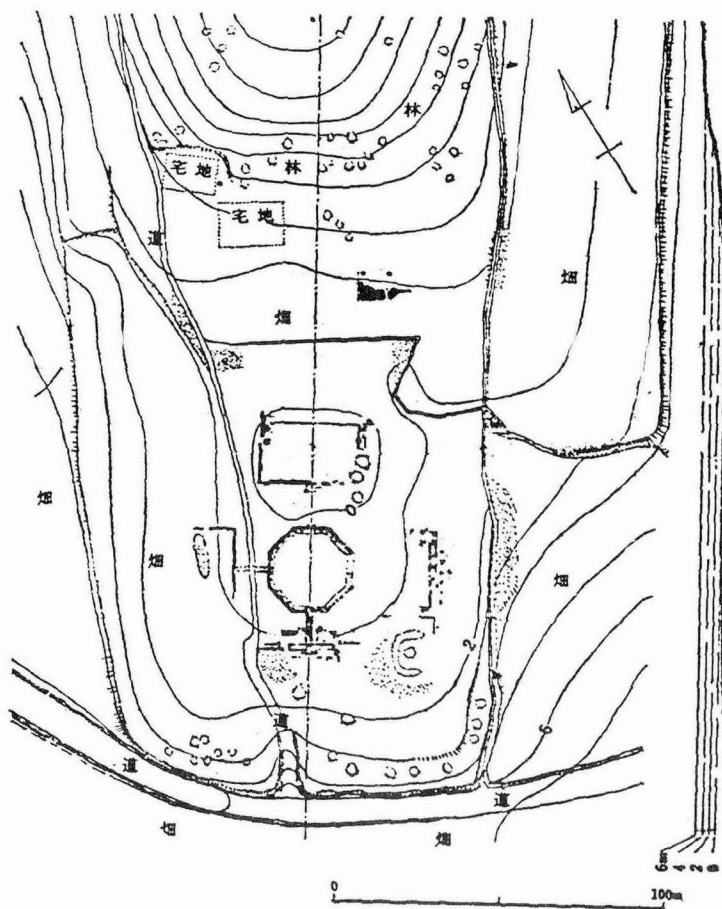
〈圖 1〉 松菊里 50地區 1號 住居址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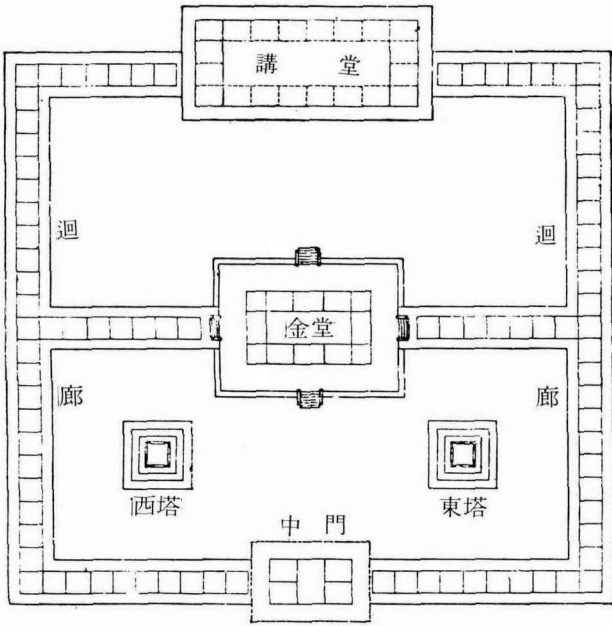
〈圖 2〉 日本 福岡縣 大木遺跡住居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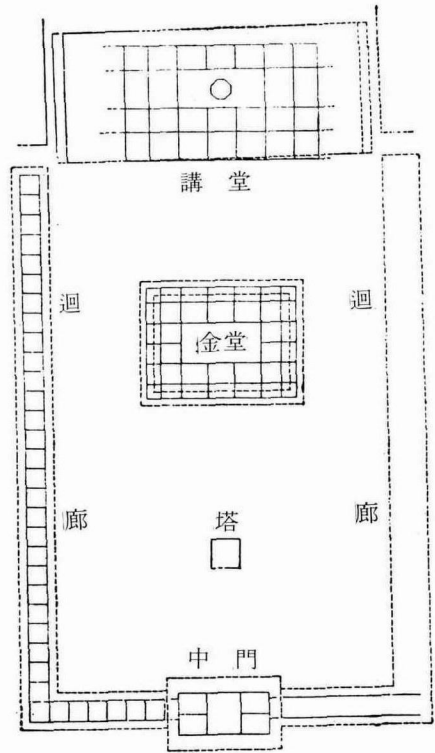
〈圖 3〉 飛鳥寺伽藍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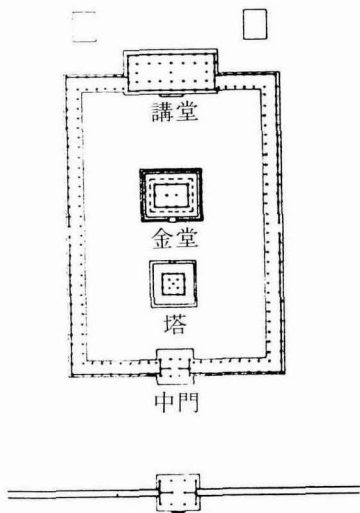
〈圖 4〉 清岩里廢寺發掘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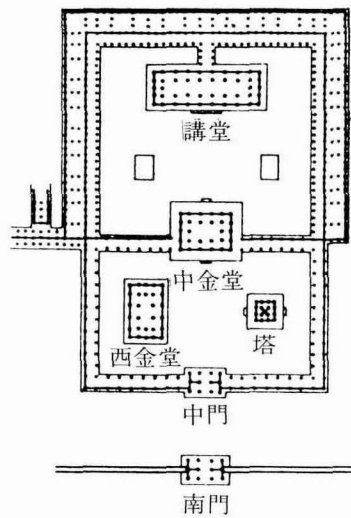
〈圖 5〉感恩寺伽藍復元圖



〈圖 6〉扶餘 百濟 定林寺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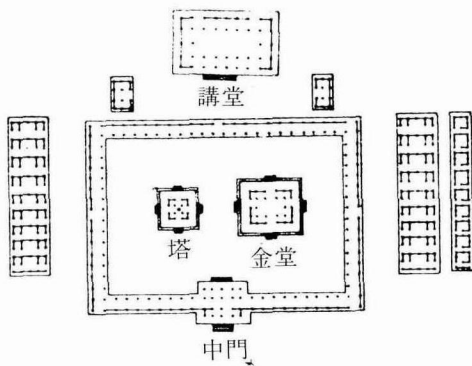


〈圖 7〉 四天王寺伽藍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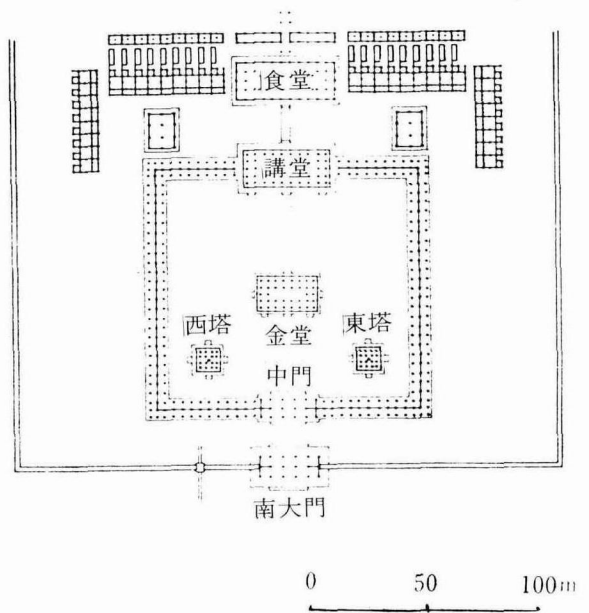


〈圖 8〉 川原寺伽藍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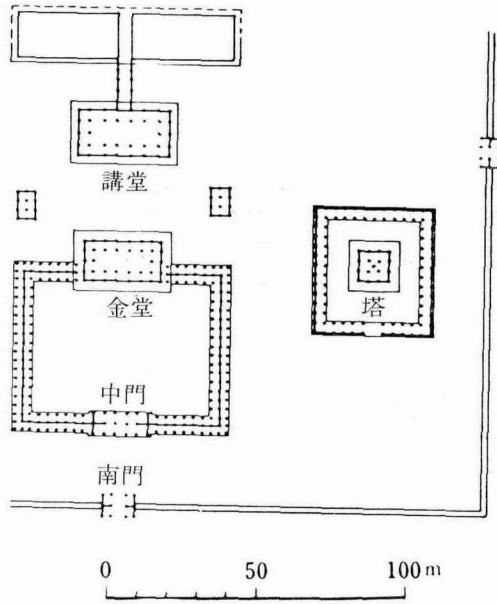
0 50 1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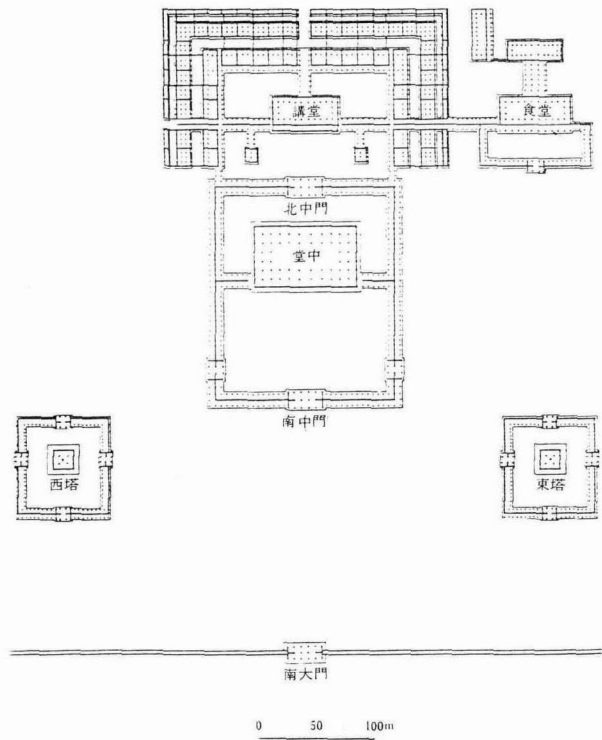
〈圖 9〉 法隆寺復原伽藍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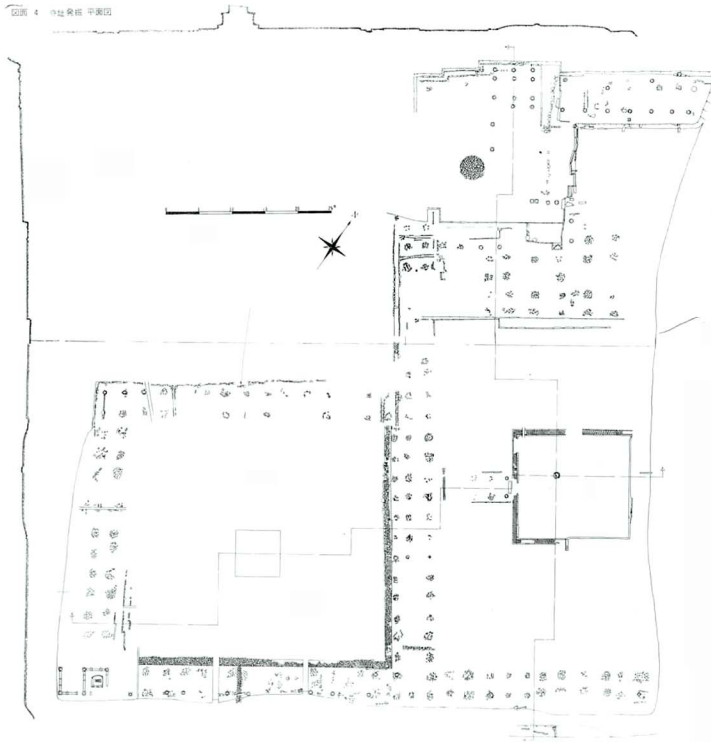
〈圖 10〉 藥師寺伽藍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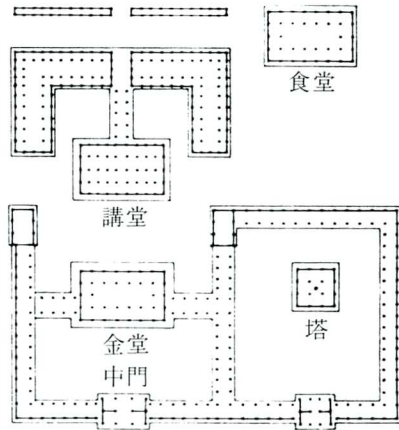
〈圖 11〉陸奥國分寺伽藍配置圖



〈圖 12〉東大寺伽藍配置圖



〈圖 13〉高仙寺伽藍配置



〈圖 14〉甲可寺伽藍配置圖